

환절기 면역 강화, 한약 개발해 맞춤 솔루션

‘기린한방병원’ 20년 임상 데이터 바탕 성장탕 처방

한방 진료의 전통을 이어온 기린한방병원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맞춰 면역력 강화와 감기·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 진료를 강화하며 내원 환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홍기욱 원장은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몸은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증상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맞춘 예방 치료가 건강한 계절을 보내는 열쇠입니다” 라고 전했다.

■ 복부 온열치료와 면역 증진

기린한방병원에서 시행되는 복부 온열치료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보조 프로그램이다. 복부 깊숙이 전달되는 따뜻한 열은 면역력과 장 기능을 동시에 끌어올려, 피로·병증·수면 장애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맞춤 한약과 병행할 경우 환절기 면역 관리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 현대인을 위한 맞춤 한약 솔루션

기린한방병원은 전통 한약의 깊이를 현대인의 체질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재해석하며, 성장 지원, 체중 관리, 피로 회복, 소화기 강화 등 다양한 기능성 한약제를 직접 개발하고 처방해오고 있다.

대표 처방인 성장탕은 20여 년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



으로 성장관 검사와 체질 진단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체력 강화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혈공진단은 ‘혈관 청소약’으로 불리며, 혈액 순환 개선 및 허약 증상 회복에 효과가 뛰어나 고혈압, 수족냉증 등 순환기계 증상 완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도입된 통기환은 소화불량, 더부룩함, 답답한 속증상에 즉각 반응하는 특화 한약으로,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 속에서도 속 편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 침치료와 환절기 면역 관리

기린한방병원은 환절기 건강 관리에서 침치료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혈 자극을 통한 침치료는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두통·피로·호흡기 불편 같은 환절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맞춤 한약과 복부 온열치료를 함께 적용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

■ 예방 중심의 진료 철학

기린한방병원은 소아·청소년부터 성인, 노년층까지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면역력 강화와 계절성 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홍 원장은 “환절기는 예방 진료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원 환자분들이 임상에서 활력을 되찾고 건강하게 계절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사명” 이라고 전했다.

■ 보험 안내

메디케어 HMO, 커버드 캘리포니아, PPO 등 다양한 보험 적용 가능

▶ 문의: (714) 752-6320

▶ 주소: 7461 La Palma Ave. Suite A Buena Park, CA 90620

가주 전력회사 또 파산 우려 PG&E, 에디슨, 산불 배상 책임에 위기론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동부에 위치한 PG&E 본사. 사진=shutterstock

캘리포니아의 최대 전력회사인 PG&E와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산불 배상 책임

으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디슨은 자사 설비가 1월 발생한 이튼 화재 발화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이튼 화재와 2022년의 페어뷰 화재와 관련해 에디슨을 상대로 과실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PG&E도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2019년 북가주 대형 산불로 PG&E가 파산하자,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산불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5년

이 지난 현재 기금 순자산은 약 130억 달러에 불과하다. 기금은 대부분 PG&E와 에디슨이 강제 출연한 돈으로 충당돼 왔다. 기금은 이튼 화재만으로도 보험 손실이 1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1월 LA 일대 산불 전체 피해액은 1,3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800억 달러 규모의 ‘연속 기금’을 마련하는 초안을 내놓았다. 전력회사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자금도 2045년까지 모아

야 하며, 단일 화재 피해액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기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이 가능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파산은 불가피하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역 수용(inverse condemnation)’ 원칙도 위기를 키운다. 전력회사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설비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의지가 없다.



“자동차, 집 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보험 갱신을 안 해주나요?

문의 환영

25년 경험으로

 고객에게 맞는 좋은 플랜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고정 이자 4.75%

(*최소 예치금액 \$100,000)

2025년 8월 8일 기준(양후 변동 가능). 3년 내 해약 시 패널티 적용.

LiveWell Guarantee Max, a multi-year guaranteed annuity issued by Midland National Life Insurance Company.

Anaheim Office: 323 N. Brookhurst St., Anaheim

올스테이트는 메이저 회사로서 고객을 우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714.340.6903 / 714.715.8088
YOUNG K. PARK, JD
CA Lic No. 0C71251
YoungPark@Allstate.com



정확하고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